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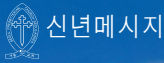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would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요 11:17-44)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누이들을 절망감에 빠뜨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I.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은 '부활 신앙'을 가지라 하신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때, 여기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장례한지 나흘이 지난 다음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기적뿐임을 아신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날 것을 아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부패하여 악취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곤고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뒤로 하고 현실 앞에 불가능을 선언합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녀들의 믿음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 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먼 훗날 부활할 것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생명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요 3:15)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요 14:6).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빛으로 진리를 조명해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보고, 교제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II.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믿으면 본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며 죽음 너머의 세계는 가본 적이 없으니 그 세계는 없다고 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머스 아퀴나스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 믿겠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식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민 23:19, 고전 1:9)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기대 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연결된 믿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공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확신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자를 불렀습니 다.

III. 신행 일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불신앙, 부도덕, 부정직, 방탕, 썩은 냄새 나는 죽은 자 같은 시체들에게 복음, 용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신행일치의 믿음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행동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사로의 수의를 풀어주고 믿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입관, 무지, 오류, 절망, 의심, 고통의 수의를 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이며 영어로 to appear, '나타나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행함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2020년, 하나님의 권능과 기쁨과 명성을 온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 위원장들에게 듣는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임상현 장로
(당회서기
기획위원장)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주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입니다. 본문인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이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오직 말씀으로 준비하여 황폐해진 교회와 불탄 성문을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위로의 권면이 아닐까요.

지난 4년 여 지나긴 분쟁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생명 다하여 지켜온 내 사랑 서울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재건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고,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며, 성경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 받으며 교회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왔습니다.

이제 교회의 거룩하고도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본격적인 교회 재건의 시기에 함께 동역할 일꾼이 심히 부족합니다.

지난 해 신년인사로 드렸던 부탁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라는 고백과 헌신으로, 그리하여 곧 다가올 교회회복의 때에 그 어느 누구 한분도 예외 없이 그 길에 가까이 동참하였다고 함께 손뼉 맞대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명의 완수자로 길이 기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차도훈 장로
(예배위원장
관리위원장)

2019년은 우리에게 잊지 못 할 아픔과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서울교회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꿈 같은 은혜를 덧입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이요, 은혜와 고백의 향연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성도 됨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특권으로 확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분란을 겪으면서 예배의 감격과 예배 처소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동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지체임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와 봉사를 하는 곳이요,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1층 만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유아부로부터 각 교육부서의 예배와 섬김을 위한 봉사부서에 이르기까지 좁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어 쓰며 빠른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는 효율적인 장소의 이용을 위하여 서로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함

께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부서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과 청결한 장소를 위한 청소 등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움직이는 지체가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소견대로 따로 따로 움직인다면 엷히고, 부딪히며,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기다리며, 지적하고, 시키려고 하는 주인 노릇이 아닌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출선수범하는 청지기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마음만큼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이계훈 장로
(교육위원장
전도위원장)

서울교회 교육목표는 천국시민양성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회학교가 영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역자와 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금년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에 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에 뒤섞이지 아니하고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가 되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천국시민으로 교육하는 교사재교육을 하고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족하여 먼저 신행일치의 본을 보이며 구체적이고 철저히 준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전도하는 삶의 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교회에는 선교회와 전도회가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해에는 선교회와 전도회가 전도와 구제를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열기가 다시 일어나 올 연말에는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오광환 장로
(재정위원장
교구위원장
구제위원장)

지난해 신년 연초 고등법원 안식년 판결 이후 계속 소식에 이어 연말 총회의 결정적인 판결로 서울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안식년 본안 상고심 결과만 나오면 본격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교회회복의 절차를 밟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교회 재정위원회는 교회설립 목적인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를 위해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을 주 재정으로 공동의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으로 각종 교회 대 내, 외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교구위원회는 91년 교회설립 이후 그동안 교육과 전도와 구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당회 산하 지역별 교구 다락방을 조직, “모여 예배하고, 흠어져 전도하며 상담, 심방, 구제, 예식 등에 참여 교제와 봉사활동을 통해 성도간 위로하고 어려움을 파악 보고하여 교회차원의 기

도와 예배 지원 등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로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 교구별 체육대회와 찬양경연대회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단결과 힘을 모아 교회 행사 등에 참여, 사역을 감당하며 바자를 통해 구제활동에 앞장서왔고 2016년에는 16개 교구 200여개 다락방으로 사역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000 여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던 성도들 숫자가 이후 교회분쟁 4년여 영적 전쟁으로 현재는 1,000여명으로 줄어들어 2020년에는 16개교구 100개 다락방으로 당분간 축소 운영하며 새 시대를 기대하며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교회가 정상화 되어 교회 당회장(대표자)가 결정되면, 담임목사 청빙과 교구 담당 목사, 전도사 보완 등 목회자 충원과 항존직 선거 충원과, 새로운 시대 형편에 맞추어 교구 다락방도 새로 개편하여 그동안 교회 장소문제 등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모임을 정례화 하고 각 교구별 다락방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실시 점검하여 이제부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심정으로 교회부흥을 위해 2020년 교구 다락방에 임명받은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등 일꾼들이 각자 직무를 맡은 대로 정리된 교적을 기반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파악 교구 지도목사와 전도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등과 심방과 유선 연락, 다시 나오도록 권면하고, 주변 신규아파트 입주자들 전도 등 예전 다락방장 10대 수칙을 교구일꾼들의 활동지침으로 다락방부터 회복을 시작하고 결과보고를 통해 실로 교회회복을 위해 교구위원회가 많은 사역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구제위원회는 교회목표인 교육과 전도와 구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구를 통한 어려운 가정과 성도들 또한 총회나 정부 등 대외 기관에서 추천된 어려운 가정이나 성도들을 선정하여 재정이나 재물 재능을 지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찬양, 기도의 선교, 감사의 새가족



최형렬 장로
(찬양위원장
선교위원장
새가족위원장)

신앙의 순례길에서
폭염과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타인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
구별하기가 어려운 현실 앞에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장소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쁨으로 정성 다하여 찬양 드리고 싶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선교하고 싶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새가족을 맞이하고 싶다.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지난 제104회 총회 총대파송,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해석 도착하다

지난 2019년 8월 30일(금) 본 교회는 총회 헌법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강남노회장을 경유하여, 박노철 목사가 제104회 총회 총대로 파송된 것과 관련, 당시 적법한 총대 자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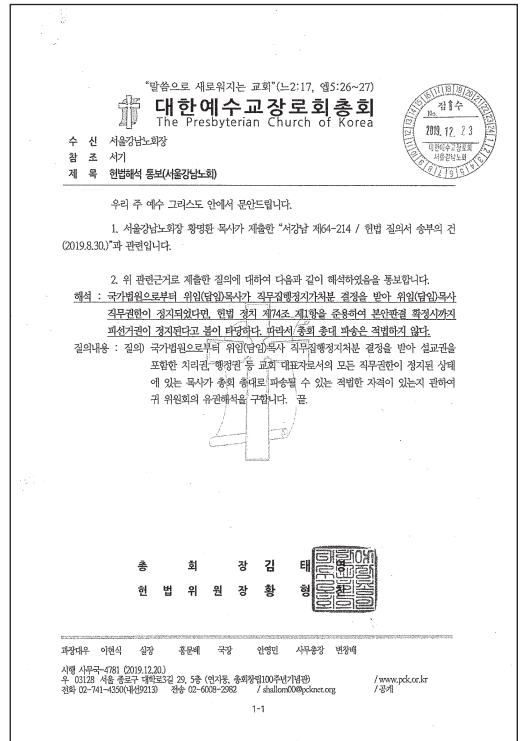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 30일(월) 총회장과 헌법위원장은 경유자인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국가법원으로부터 위임(담임)목사가 직무집행 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임(담임)목사 직무권한이 정지되었다면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안판결확정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회 총대 파송은 적법하지 않

다'는 해석을 통보하여 온 것이다.

결국 박노철 목사가 지난 104회기 총회 당시 총대로 참석하여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장로증원관련 무효확인 판결을 성토했으며 노회가 허락하여 임직시킨 장로 15명에 대하여 총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까지 한 것은 참으로 무자격 상태의 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농단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뒤늦게라도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서울강남노회와 박노철 목사와 같은 막무가내 식 헌법무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 지난 해 제104회기 총회에서 발언하는 박노철 목사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55dhhFEcbs>)



신년 감사예배

성찬식 :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결·예산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20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신년을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한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101호에서 열린다.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은 모두 참여 바란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2020년 되기를 소망한다.

농어촌100교회·Vision2020·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0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 용지를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명단은 6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록물 제출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기록물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을 작성했던 컴퓨터 파일을 2020년 1월말까지 최영철 집사(멀티미디어부 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①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전화번호 ④ 주소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린다.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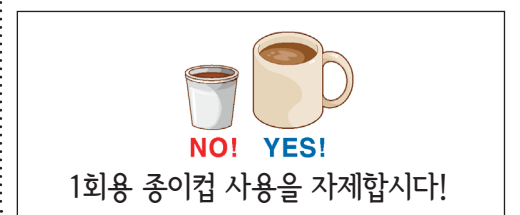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13교구 일동 윤요섭·안재희 선교회·전도회 윤종현 김형상·최금숙 이미리 김찬웅 이선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월 5일 :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
 - 1월 12일 :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성형외과)
 - 1월 19일 : 김은석(치과)
 - 1월 26일 :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원로목사님과 교역자, 장로 일동 -

▼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총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대로 항존직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 행사 및 성경통독자 시상, 장한 어머니상 시상을 진행하였다.

- ①-④ 송구영신예배
- ⑤ 은퇴장로 (하인선 장로 최광성 장로)
- ⑥ 장로 안식년 (안인호 장로 송인권 장로 오치열 장로)
- ⑦ 은퇴집사 (이승래 집사) ⑧ 은퇴권사
- ⑨ 성경통독자 시상 ⑩ 장한 어머니상 시상



사진 : 유은경 집사 이준태 집사 임중현집사



비전2020운동 후원자 1월 5일현재

이종윤 홍순복(1) / 리브가전도회(2) / 샬롬권사회(5) / 1교구 김애리(1) 박찬성(심명숙)(1) 양춘경(이인숙)(1) 이신재(10) / 2교구 정치은(김영현)(3) / 3교구 김명심(1) 김인아(1) 백훈(1) 송인권(1) 양옥자(1) 이순례(2) 최임수(2) / 4교구 김광민(박민숙)(1) 김재중(김유경)(2) / 5교구 김혜연(박은영)(1) 유영경(1) 이화숙(1) 임선철(이영주)(2) 하인선(남태순)(5) 흥해란(3) / 6교구 황병석(2) / 7교구 유형석(제오복)(2) / 8교구 김광욱(서영희)(2) 손태현(2) 이관규(이순영)(2) / 9교구 김경숙(1) 김명화(1) 윤봉준(1) 이강전(양길순)(2) 이주현(이주영)(1) 전용순(1) 지성철(유묘종)(3) 황재연(1) 허경화(1) / 10교구 박광훈(이진순)(2) 조정옥(1) / 11교구 김명자(1) 김양숙(1) 서명철(2) 안인호(이명신)(3) 안홍희(전화진)(2) 이옥희(이흥기 이승준)(1) 임우택(김정숙)(3) 정미자(2) 조원영(2) / 12교구 오광환(1) 위성남(1) 임상현(5) 장윤기(노애리)(1) 최광성(5) 최근자(1) 최지욱(5) 최종금(1) / 13교구 김지수(김순진)(1) 박해정(1) 오만옥(박미영)(1) 전성희(1) 최원석(박길희)(1) / 14교구 김광래(2) 김유평(이순형)(5) 박상훈(1) 박정자(2) 송인덕(1) / 15교구 신모란(2) / 16교구 백도환(2) 정복순(1)

(다음 주 계속)

...

작년 한해 성도님들의 비전2020운동 후원, 농어촌100후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으로 대진중앙교회의 자립을 도왔으며 농촌전도대를 파송하고 해외 및 국내 선교사 38명과 미자립교회 네분 목사님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비전2020운동의 주된 사업인 진중세례식을 교회 분쟁 전과 다름없이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원자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후원사역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1월 5일현재

이종윤 홍순복(1) 서명철(1) 임상현(1) 오광환(1) 하인선 남태순임상현(1) 송인권(1/2) 최광성(1/2) 양춘경 이인숙(1) 이관규(1) 박상훈(1) 허경화(1)김유평 이순형(1) 문동진 김은정(1) 리브가 전도회(2) 김혜연 박은영(1) 박찬성 심명숙(1)정치은 김영현(1) 김광민 박민숙(1) 박정자(1) 안홍희 전화진(1) 김동준 이신혜(1) 장윤기 노애리(1) 12교구 1-3다락방(1) 이상섭(1/2) 최지욱(1/2) 김애리(1/2) 임선철 이영주(1/2) 유은경(1/2) 황병석(1/2) 최종금(1/2) 한대석(1/2) 장창수 박해정3(1/2) 박광훈 이진순(1/2) 양승호(1/2) 백도환(1/2) 신아령(1/2) 김정열(1/2) 지성철 유묘종(1/2) 원유현 전성희(1/2) 김지수12 김순진(1/2) 최원석 박길희(1/2) (다음 주 계속)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1월 5일현재

이종윤 홍순복(1) 서명철(1) 김애리(1/2) 임미경(1) 감우균 김연화(1) 박찬성 심명숙(1) 양춘경 이인숙(1) 김성은 성경/요한(1/2) 이준호3 이은희7(1) 정치은 김영현(1) 송인권(1) 김상식 이순례(1) 조상환 전광환(1) 조재민 조재석(1/2) 김재중 김유경(1) 김광민 박민숙(1) 박진형 양도현(1/2) 하인선 남태순(1) 흥해란(1/2) 흥해란(1) 김혜연 박은영(1) 임만석 임만용(1/2) 황병석(1/2) 유형석 제오복(1) 유은경(1/2) 이관규 이순영(1) 이시연(청) 이시우(청) 김진숙(1/2) 지성철 유묘종(1/2) 이남성 최영란(1) 이강전 양길순(1) 허경화(1) 박동우 백승경(1) 임종현(1) 박광훈 이진순(1) 홍석현(1/2) 안인호 이명신(1) 박창호 송민정(1) 이옥희 이흥기 이승준(1) 안홍희 전화진(1) 한대석(1/2) 신아령(1/2) 조건우(청) 조연우(청) 임상현 서희숙(1) 장해윤(청) 장해라(청) 오광환 이안순(1) 최광성 이정연(1/2) 최지욱(1/2) 장윤기 노애리(1) 위성남(홍지영 홍성민)(1/2) 오만옥 박미영3(1) 최원석 박길희(1/2) 장창수 박해정3(1/2) 원유현 전성희(1) 주화인(1) 김지수12 김순진(1/2) 채혜숙(1) 양승호 고은희(1) 김봉배(1) 박정자(1) 이신영(1) 김유평 이순형(1) 이홍숙(1/2) 이신희(1/2) 백도환 석춘희(1/2) 리브가전도회(1) 샬롬권사회(1/2)

(다음 주 계속)

▼ 작년 연말 서울교회 앞으로 성탄축하카드를 보내오신 케냐의 김낙형·오정녀 선교사님과 방글라데시의 조남해 선교사님.

2019 성경통독자 추가 및 정정

- 추가
5교구 흥해란 2독
8교구 이한나 1독
- 정정
김찬진 1독 ⇒ 2독

등 정

- 금주의 식사: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가정
김광민 집사 박민숙 집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잡채밥, 김치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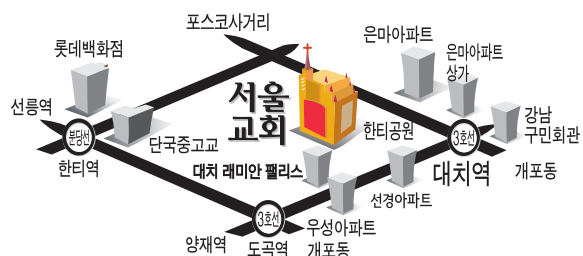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에 참여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한가정한선교사, 농어촌100교회, 비전2020운동 후원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소생케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요일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